

새로운 경혈체계-윤기평형침 2부

| 백광인 |

거칠고 강한 말보다 부드럽고 따스한 말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강한 명령보다 은밀한 은유가 사람의 심층을 건드립니다. 강력한 전류보다 미세전류가 도롱뇽의 뒷다리를 더욱 빨리 재생시킵니다. 그와 같이 깊고 강하게 찌르는 침보다 반발작용을 없앤 평형침이 더 효과가 있다고 이 글은 말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모임에 참석하여 저자와 의견을 나눠보세요(편집자 주).



1. A경맥경혈선

개요

A경맥선은 인체 후면의 반응을 반영한다. 즉 후면의 중심을 흐르는 독맥과 6장 6부의 유험이 집중되어 있는 방광경, 어깨와 승모근을 흐르는 삼 경과 소장경의 일부 반응대 위주로 되어있다(아래 그림 1 참고).

A경맥선의 증상을 흐르는 AC선은 인체 후면의 정중선을 대표하며 제침 상의 독맥에 해당된다. 이 경맥선은 임맥과 함께 인체전체의 기혈순환을 조절하는 생명유지의 핵심이 되는 경맥선이다. 양맥의 바다이며 수족6양경은 모두 이 AC선(독맥선)과 대추선에서 만나게 되는데, 양경에 대한 조절작용을 하는 경맥선이기도 하다. AC선은 따라서 독맥의 이상에서 오는 제 질병이나 증상을 다스릴 때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배혈하는데 특히 뇌와 척추신경계의 이상,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를 치료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또한 인체의 면역기능을 회복하는데 반드시 AC선을 활용하여야 하며 생식기와 관련된 질환이나 요통, 오장육부의 균형회복, 경추와 관련된 제 증상을 치료하는데 수이다.

자입방법은 AC선 전체를 자침해도 좋으나, AC선상의 임의의 두 지점 사이(특정영역, 예를 들면 지양선에서 신유선까지 등)를 0.5촌 이상 평자(깊이 1.5~2.0mm, 길이 0.5촌이상)하면 된다. AC선에 자입하면 독맥 전체를 자극하는 효과를 내며 독맥 전체의 기혈이 소통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음에 AL선과 AR선이 있는데 이는 독맥 옆 1.5촌 지점을 상하로 흐르는 좌우 방광경의 1선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경맥선은 인체 6장 6부의 유험이 집중되어 있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반드시 활용되는 혈자리의 집합이다. 육음의 외사는 유험로 들어가 모혈에 머문다는

말처럼 해당 장부에 들어간 사기를 물리치고 병증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사기의 입구인 유험과 사기가 머무는 모혈을 중심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배유험은 특히 모든 장부의 양기가 모이는 혈이므로 양기의 허쇠, 항진과 관련하여 나타난 증상에 수적으로 취혈하는 혈이다. 따라서 AL선과 AR선의 자침은 모든 질병의 기능조절과 균형회복에 효과가 좋고 자율신경계질환, 신경성질환, 정신질환, 비노생식기질환과 요통, 방광경상의 제 질환의 치료에 좋다. 이 외에도 인체후면부의 제 증상에 배혈한다.

자입방법은 AC선의 방개(좌우) 0.3촌 지점을 수직으로 이은 선인데, 선상전체를 자입(2개 내지 3개를 이어 자침해도 됨)해도 좋으나, AL선 및 AR선의 임의의 두 지점 사이를 0.5촌 이상 평자하면 된다. 또한 특정질환이나 증상으로 좁혀 치료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요통이나 좌골신경통의 경우 해당 경혈선인 A9선(대장유선)이나 A6선(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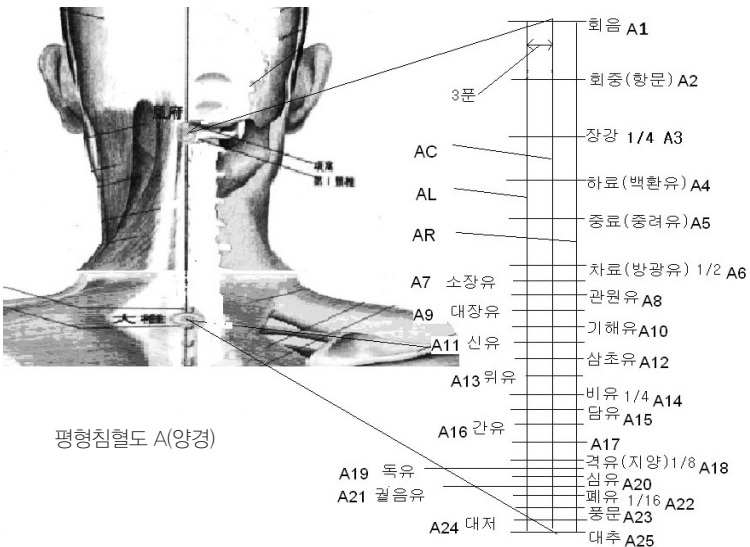


그림 1. A 경맥선

료, 방광유선)을 우선 수평으로 평자한 다음, 이 구간을 수직으로 흐르는 AL선과 AR선의 해당부분에 평자하면 되는 것이다.

이하 주요 경혈선의 위치와 경혈선별 적응증을 상술하기로 한다.

- A1선(회음선) : 기본경혈선으로 풍부와 그 혈의 좌우 연장선에 위치. 체침 상의 회음과 좌우 연장선의 반응대. 임맥, 독맥, 충맥의 기가 일어나는 곳, 생식기전반의 문제, 만성치질, 항문주위염, 질염, 음부통증, 요도염, 전립선염 등에 활용.
- A25선(대추선) : 기본경혈선으로 체침 상의 대추혈과 그 혈의 좌우 연장선. 6양경이 만나는 곳, 감기 및 발열과 통증, 비염, 인후염, 두통, 뇌일혈, 정신병, 경항강직 및 오규의 증상에 좋다.
- A6선(방광유선) : A1선(회음선)과 A25선(대추선)의 중간선(1/2). 체침 상의 좌우 차료와 방광유를 잇는 선의 반응대에 해당. 좌골신경통, 요(척)통, 부인병 등의 비뇨생식기질환 전체, 하지마비와 감각이상, 하지무력 및 한냉증, 하초이상, 습열제거, 유정, 유노, 복통 설사, 변비, 여성하초종괴, 음부통증, 이노, 임질, 하초의 원기증강, 치질, 탈항, 류머티스, 직장염, 변비, 당뇨병 등의 증상에 배혈.
- A14선(비유선) : A25선(대추선)과 A6선(방광유선)의 중간선. 체침 상의 척중과 좌우 비유를 잇는 선의 반응대에 해당. 당뇨에서 오는 황달, 전간, 피로, 권태감과 몸이 여위는데, 갈증, 식욕감퇴, 만성 위염, 궤양, 간염, 장염, 부종, 담마진(두드러기), 만성출혈성질환, 치질, 소아의 탈항, 복부팽만, 설사 등에 사용.
- A18선(지양선) : A25선(대추선)과 A14선(비유선)의 중간선(1/2). 체침 상의 격유와 좌우 지양, 격관을 잇는 선의 반응대에 해당. 모든 한열상쟁의 증상, 횡격막 및 혈(血)과 관계되는 증상에, 호흡, 순

환, 소화기계이상에 널리 이용, 간염, 담낭염, 위통, 늑간신경통, 요배통 등에 배혈.

- A22선(폐유선) : A18선(지양선)과 A25선(대추선)의 중간선(1/2). 체침 상의 신주와 좌우 폐유 및 백호를 잇는 선의 반응대에 해당. 사기를 쫓아내는 경혈선, 유아의 강진혈, 머리, 목, 어깨 등의 통증, 모든 폐질환, 정신과질환, 감기, 해수 등에 좋다.
- A16선(간유선) : A18선(지양선)과 A14선(비유선) 중간선(1/2). 체침 상의 근축과 좌우 간유 및 혼문을 잇는 선의 반응대에 해당. 간과 근육의 제질환, 전간, 요배통, 위통, 흉협통, 불면증, 발이 붓는 것, 정신질환, 안과, 늑간신경통 등에 유효.
- A11선(신유선) : A14선(비유선)과 A6선(방광유선)의 3/8지점(A14선에서부터 세 번째)을 횡으로 잇는 선. 체침 상의 명문혈과 좌우 신유 및 지실을 잇는 선의 반응대. 선, 후천의 원기가 머무는 곳, 생명활동의 중심선, 모든 신장(신염·결석, 부종, 신부전)과 방광질환, 심장병, 허약체질, 정력감퇴, 고혈압, 자궁 및 생식기병, 신경쇠약, 히스테리, 정신질환, 중풍, 요슬신경통, 어지러움, 뼈와 골수의 질환. 신허에서 오는 이명, 당뇨병, 두통, 생리이상, 설사, 구토, 장염 등에 해당 경혈(명문, 신유, 지실)의 반응이 나타남.

→ 모든 증상에 적용되는 운기침의 기본혈

대추선, 회음선, 차료선, 비유선, 지양선, 폐유선, 간유선, 신유선

2. B경혈경맥선

개요

B경맥선은 인체 전면의 반응을 반영한다. 즉 전면의 정 중양을 상하

로 흐르는 임맥을 중심으로 신경, 위경, 비경이 유주하고 외곽으로 간경과 담경 및 심포경이 흐르며 6장 6부의 모혈이 모여있다.

임맥을 음맥의 바다라고 하는 이유는 수, 족의 3음인 간경, 심경, 비경, 폐경, 신경 및 심포경이 모두 임맥으로 들어가 서로 만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경의 으뜸이 임맥이다. 그래서 음경맥의 이상을 다스릴 때는 반드시 이 임맥선을 취한다. 또한 간, 심, 비, 폐, 신과 관계되는 증상과 병후를 다스릴 때도 역시 전면의 해당 경혈선 내지 경맥선을 자극하면 치료된다. 특히 임맥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를 흐르는 경락들인 신경, 위경, 비경의 해당 경혈선을 활용하면 웬만한 증상들은 단기간에 해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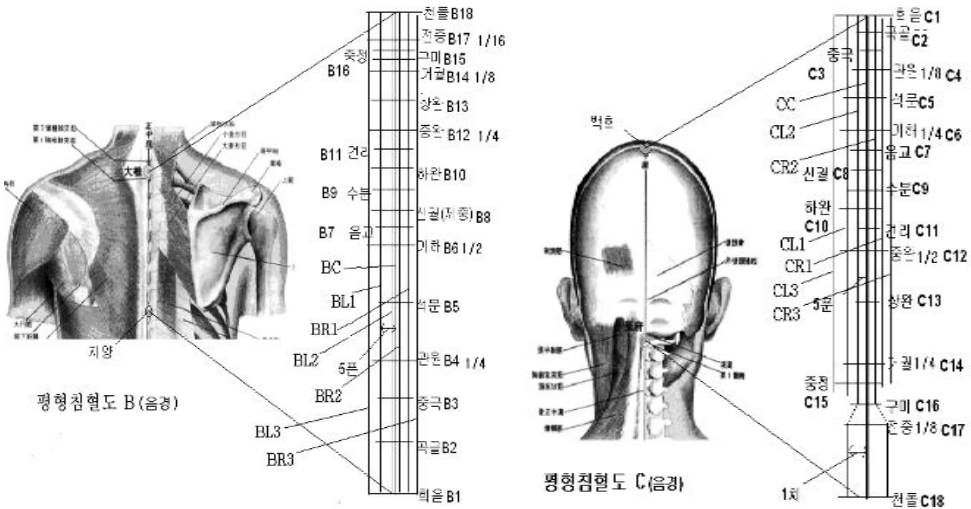


그림 2. B경맥선과 C경맥선

그리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B와 C경맥선 내의 동일한 명칭을 갖는 경혈선은 그 기능과 주치가 같다는 의미이므로 한 쪽만 자침을 해도 된다.

B경맥선의 중양을 흐르는 BC선(임맥선)은 인체의 전면 정중선을 대표하며 체침 상의 임맥이 반응하는 선에 해당된다. 이 경맥선은 모든 음맥이 모여드는 음맥의 바다이며 족삼음경은 모두 아랫배에서 만나고 좌우의 음경이 BC선(임맥선)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BC선(임맥선)은 음경전체의 기능조절작용을 하며, 임맥의 이상에서 오는 제 질병이나 증상을 다스릴 때 우선적으로 BC선(임맥선)을 취혈하며, 비뇨생식기질환, 위와 장질환, 그리고 흥부 및 인후, 정신질환과 강장작용을 다스릴 때도 반드시 취혈한다. 이 선은 또한 여성의 임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초의 어혈이나 경결, 장내에 가스가 차거나 하는 증상은 여성의 불임과 생리이상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부인과 질환에도 반드시 BC선(임맥선)을 취혈하도록 한다.

자침방법은 BC선 전체를 자침해도 좋으나, BC선상의 임의의 두 지점 사이를 0.5촌 이상 평자(깊이 1.5~2.5mm, 길이 0.5촌이상)하면 된다. BC선에 자입하면 임맥 전체를 자극하는 효과를 내며 임맥 전체의 기혈이 소통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음으로 BL1선과 BR1선이 있는데 이는 임맥옆 방개 4촌(결분~유근)과 2촌(불용~기충)을 상하로 흐르는 좌우 위경선이다.

이 경락선은 위에 관련되는 질병 뿐만 아니라 전체 소화기계질환을 다스릴 때도 반드시 취혈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병의 치병에 위기를 먼저 다스려야 하는데 오장육부가 위기에서 에 지를 받아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를 오장육부의 바다와 같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6양경 가운데 오로지 위경만이 인체의 전면을 흐르는데 이는 전면의 6음경 및 교맥과 유맥 대맥 등의 기경팔맥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가 순조롭지 못하면 제 장부의 기능이 저조하여 병사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처방

에 위장의 기능을 돕는 약()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침방법은 BC선 좌우 6푼 지점을 수직으로 평자한다.

BL2선과 BR2선은 임맥옆 좌우 2촌 및 0.5촌 지점을 상하로 흐르는 신경선이다. 이 경락선은 신경의 반응대를 대표한다. 따라서 우선 신장과 생식기로 대표되는 자궁이나 비뇨기계 및 부신계통의 기능허쇠나 향진 등에 일차적으로 배혈을 하게 된다. 자침방법은 BC선의 바깥쪽 2푼 지점을 수직으로 평자한다.

BL3선과 BR3선은 비경맥의 반응을 대표한다. BC선의 좌우 4촌 지점을 상하로 흐르는 경락선이다. 이 경락선은 췌장, 비장과 소화흡수 및 신진대사와 관련되는 모든 기능을 조절한다. 우선 췌장의 기능은 소화효소를 생산하여 이를 위에 보내 영양과 수분을 인체에 고루 보내는 운화작용을 통하여 각 장부가 정상적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영양보충을 통하여 근육이나 점막을 만들어 내게 되며, 혈당량을 조절한다. 비장은 혈액 속의 적혈구와 백혈구를 생산, 조절하고 임파구와 같은 면역반응세포를 생산하여 면역에 관여하며 체내의 혈액량을 조절하는 통섭작용을 한다.

따라서 BL3선과 BR3선은 위와 같은 췌장과 비장기능의 향진, 허쇠로 인하여 운화와 통섭기능의 부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증상들에 유효하다. 소화불량, 구토, 위통, 복부팽만, 수족냉증과 무력감, 쥐가 자주 날 때, 그리고 운화의 부조화로 수분대사의 이상에서 발생하는 습사는 몸을 무겁게 하며 부종이나 설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들에 BL3선과 BR3선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침방법은 BC선의 바깥쪽 1촌 지점을 수직으로 평자한다.

이하는 인체 전면을 반영하는 주요 경혈선의 위치와 주치에 대한 기술이다.

이 중 6장 6부의 모혈반응대가 치병에 대단히 중요한데 이는 모든 병의 사기가 이 모혈에 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질병의 병증이 여기에 나타나므로 이를 다스리자면 배유혈과 함께 반드시 취혈해야 하는 경혈선이다.

- B1선(회음선) : 기본경혈선으로 지양과 좌우 격유를 잇는 연장선. 체침 상의 회음과 좌우 연장선의 반응대. 임맥, 독백, 충맥의 기가 일어나는 곳, 생식기전반의 문제, 만성치질, 항문주위염, 질염, 음부통증, 요도염, 전립선염 등에 활용.
- B18선(천돌선) : A25와 동일. 기본경혈선으로 체침 상의 대추와 그 혈의 좌우 연장선. 체침 상의 천돌과 좌우 기사를 잇는 선의 반응대. 천식, 기관지염, 인후염, 갑상선종대, 구토, 해소에 배혈.
- B6선(기해선) : B1선(회음선)과 B18선(천돌선)의 중간선(1/2). 체침 상의 기해혈과 좌우 연장선의 반응대. 모든 침뜸의 기본경혈선. 원기의 바다. 하초의 허냉과 장부의 원기부족에 수. 신경쇠약, 신장 질환(수종), 맹장염, 만성복막염, 요통, 하지무력과 냉증, 남녀 생식기질환, 복부팽만 등에 좋다.
- B4선(관원선) : B1선(회음선)과 B6선(기해선)의 중간선(1/2). 체침 상의 관원과 좌우 수도혈을 잇는 선의 반응대. 하단전, 정력감퇴, 원기회복에 수. 습열제거혈, 모든 소장 및 신방광질환, 빈뇨와 뇨폐, 하복부팽만, 자궁질환일반, 복막염, 복통, 급성류마티스, 설사, 탈항, 비뇨기질환일반, 신염, 변비, 중풍탈증, 고혈압, 불면증 등에 유효. 여성의 제 질환 기본방. 하초의 제 질환에 광범위하게 활용.
- B12선(중완선) : B6선(기해선)과 B18선(천돌선)의 중간선(1/2). 체침 상의 중완과 좌우 양문을 잇는 선의 반응대임. 인체의 정 중앙,

중 를 대표하는 경혈선, 모든 질병 및 예방에 반드시 활용되는 기본 경혈선, 소화관련 제 질환에 수, 비장의 운화(좌양문)와 담즙소통(우양문), 당뇨병, 황달, 변비에도 반드시 배혈함.

- B14선(거혈선) : B18선(천돌선)과 B12선(중완선)의 중간선(1/2). 체침 상의 거혈과 좌우 유문, 불용, 기문을 잇는 선의 반응대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혈들의 주치 범위가 B14선(거혈선)의 치료의 범위가 될 것이다. 심경과 간경의 모혈이 관계되는 경혈선이므로 두 경락의 치료혈이 첫째이다.

심통, 심계항진, 심장판막증, 협심증, 흉만 등의 심장병일반과 간염, 간경변, 간기능장애, 담석증 등의 간질환에도 수혈이다. 또한 소화기계질환에도 자주 활용되는데 식도협착, 위산과다, 신경성구토, 위경련, 설사 등에도 배혈하며, 이 외에도 상지신경통, 류머티스, 횡경막질환과 천식 및 말라리아에도 배혈한다.

- B17선(전중선) : B18선(천돌선)과 B14선(거혈선)의 중간선(1/2). 체침 상의 전중과 좌우 신봉, 유증을 잇는 선의 반응대이다. 전중은 심포경의 모혈이므로 이 경혈선은 주로 심포락과 삼 의 질환을 다스리는데 주로 활용 된다. 상 의 제 질병에 활용, 심통, 심장판막, 심계항진, 협심증, 늑막염, 신경쇠약, 유즙부족, 해수, 천식 등에 배혈한다.

- B3선(중극선): B1선(회음선)과 B4선(관원선)의 2/3지점을 횡으로 잇는 선. 체침 상의 중극과 좌우 대혈, 귀래를 잇는 선의 반응대이다. 중극은 방광경의 모혈이므로 B3선(중극선)은 방광질환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비뇨생식기계의 질환에 주로 취혈하는데 방광염, 방광결핵, 요도염, 임질, 전립선비대, 음위, 유정 등에 좋다. 또한 모든 부인과

질환에 잘 듣는데 자궁내막염, 대하, 월경불순, 불임, 월경통 등에 사용한다. 이 외에 방광경과 표리관계인 신장관련 질환에도 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신장염의 경우 이뇨작용을 촉진한다. 또한 좌골신경통이나 하지의 류머티스에 잘 들으며 후두통에도 배혈한다.

- B6선(신궤선) : B6선(기해선)와 B12선(중완선)의 1/3지점을 횡으로 잇는 선. 체침 상의 신궤과 좌우 천추, 대횡을 잇는 선의 반응대이다. 중풍허탈, 사지궤냉, 급성의식불명, 전간, 허약체질, 복부팽만, 수종, 탈항, 급성설사, 변비 등 대장질환, 남녀의 비노생식기병, 장염, 신염, 신우염, 모든 만성위장병 등 활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 모든 증상에 적용되는 운기침의 기본혈

천돌(대추)선, 회음선, 중완선, 거궤선, 전중선, 관원선, 기해선(남), 중극선(여)

3. 12경맥선

그림 3,4,5는 B,C,D,E구역(지난 15-2호, p181 참고)에서의 12경맥선을 나타내고 있다. 경맥선은 기본적으로 해당 경맥이나 장부의 제증상을 포괄적으로 다스리고 조절하는데 탁월하다. 따라서 해당 경맥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취혈하며 상생, 상극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허실을 다스릴 때 관련 장부의 경맥선에 배혈한다면 장부의 균형회복에 대단히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일반적으로 체침체계의 경우 해당장부의 기능조절을 위해 원혈을 배혈하게 되는데 운기침의 경맥선은 원혈보다도 활용범위가 넓고 효과가 명확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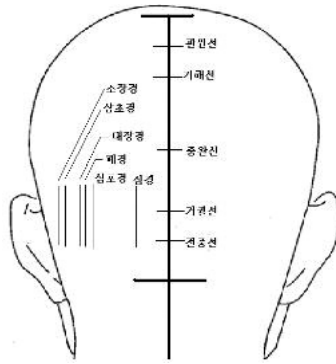


그림 3. 수3음3양경

수3음3양경의 취혈표

경맥	심경맥	심포경맥	폐경맥	대장경맥	삼초경맥	소장경맥
cm	1.7	4.4	4.9	5.2	6.6	7.0
촌법	0.8	2.10	2.33	2.48	3.14	3.33

* 1촌(중지 가운데마디 기준) = 2.1cm기준. 중심선에서 경맥선까지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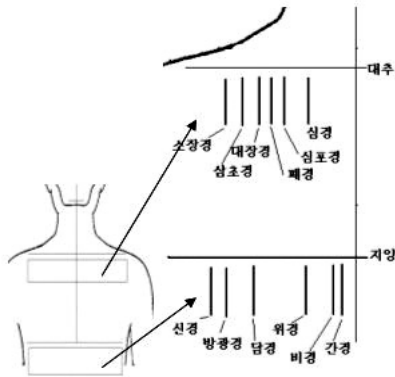


그림 4. 수족3음3양경

족3음3양경의 취혈표

경맥	간경맥	비경맥	위경맥	담경맥	방광경맥	신경맥
cm	0.5	1.1	2.0	4.3	5.1	6.2
촌법	0.24	0.52	0.95	2.05	2.43	2.95

(E구역 - 족3음3양경의 취혈표)

경맥	간경맥	비경맥	위경맥	담경맥	방광경맥	신경맥
cm	0.8	1.4	3.7	7.5	9.5	11.7
촌법	0.38	0.67	1.76	3.57	4.52	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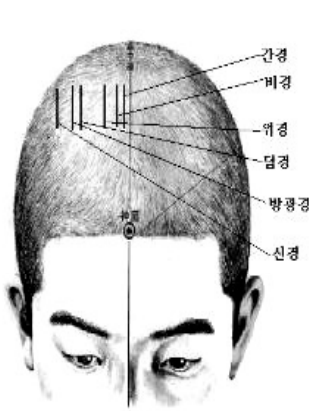


그림 5. 족3음3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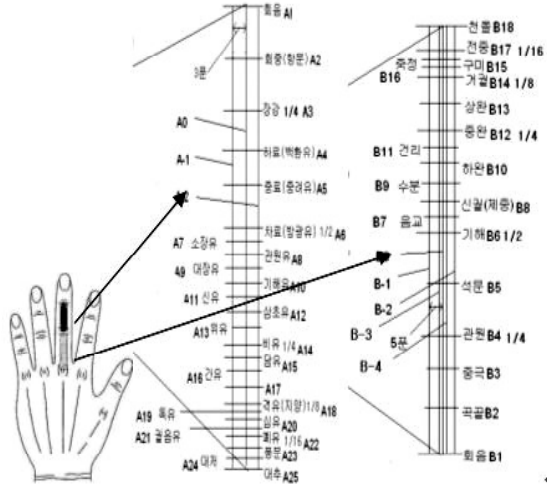


그림 6. 중지에서의 운기침의 경맥경혈선

4. 운기침의 중지에서의 적용


운기침의 경맥경혈선 체계를 중지에도 적용하여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다(그림 6).

중지에서의 적용은 중지의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에 운기침 체계의 A,B경혈경맥선 반응이 정확히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진단점이자 치료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지의 반응대는 좁은 면에 인체의 전면과 후면의 반응대가 조밀하게 집중되어 있는 만큼 침을 사용하여 자극할 요가 없다. 오히려 엄지나 검지 손톱으로 자극을 해준다면 대단히 효율 높은 치료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체증으로 거quil 부위의 통증이 느껴

진다면 A경맥선(중지 셋째 마디, 보라색 칠한 부분)의 지양선이나 B경맥선(중지둘째 마디, 연두색 칠한 부분)의 거결선을 엄지손톱으로 자극하면 통증은 곧바로 해소된다. 또 허리통증으로 고통을 느낀다면 A경맥선(둘째 마디)의 정중앙에서 첫째 마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자극해 간다면 심한 압통을 느끼는 반응대가 있는데 이 곳을 1~2분 정도 누르고 있으면 곧바로 통증은 소멸된다. 만약 척추염이나 척추관련 증상이 심하다면 A경맥선의 정중앙선을 따라 엄지나 검지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자극해 준다면 증상의 개선이나 치료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운기침의 경혈선을 중지에 적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은 실로 광범위하며 이는 추후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개할 것이다.

5. 새로운 경혈체계의 도입을 제안하며

이상 간략하나마 운기침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운기침의 체계는 자가 지금껏 경험하고 적용해본 바로는 기존에 활용되는 어떠한 침체계보다도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자로서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개된 장소에서 평가와 검증을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운기침체계의 효용성이 입증된다면 임상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열린 마음으로 흔쾌히 줄고를 검토해 주신 이원규대표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끝)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백광인**(본명: 국창환) | 건국대학교(행정학)를 거쳐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원(경제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전) 월드정보통신 대표, (주) 아이엔정보통신 이사, (주) C&S코리아컨설팅 상무

침구학에 대한 탐구

개인적으로 침과 뜸에 관심을 갖은 지는 26년이 되지만(84년 수지침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로는 2004년 퇴사한 후부터이고 현재 제시하고자 하는 경혈체계가 완성되기까지는 2005년부터 약 3년 정도가 소요되었음. 어려서부터 몸이 많이 안좋았던 관계로 직장생활 중에도 호흡수련이나 명상법, 침구에 대한 나름 공부를 해 왔는데 그간 해왔던 기치료와 명상수련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침구이론에 접목하여 완성된 것이 소개하려는 '운기평형침체계'이다.

라이선스 : 세계침구학회연합회에서 인정하는 '국제침구사 1급'